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 영생의 비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솟아나와 은혜를 받게 돼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영생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과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이 사람이 아주 쉽게, 알기 쉽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일지라도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골자 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말씀. 이것만 알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걸 이 세상 과학자나 이 세상 학자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천 년, 만 년 우리 역사가 흐른다 하더라도 이 진리만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이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해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죽을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 그 죽을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영생의 비결만 되는 게 아니라 병도 낫게 하는, 병에 걸리려야 걸릴 수 없는 비결의 학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월사금을 내가 받

는다면 우주 덩어리만한 금덩어리를 가져와도 해당이 안 되는 비싼 학문입니다. 이런 비싼 학문을 지금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 받은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저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고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귀새끼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듯 그런 마귀새끼한테는 진주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 단계의 보물을 주지만 노력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 받는 비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면 먼저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처지는 죽을 인생이고 완전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입장은 바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려고 불러주셨으니 참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다. 이 사람이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5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제일로 죄가 많은 죄수 죄인인데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사 신앙촌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같이 살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슬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두 식구가 굶주리고 있는고로 큰 아버지 집에 가도 배대를 하고 돌려보내고, 작은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귀새대기를 갈고 구두발로 방망이를 그냥 뺏 하고 차니가 넘어지려고 해서 그냥 도망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그게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

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천대 멸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강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입안에서 뱃속까지 시원하게 생수 연결이 되는고로 몸이 동동 뜨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뱃속 깊이 충성심이 우리나라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죄인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불일이 있어서 나갈 때에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고로 다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또 닦고 손수건이 펄펄 젖어서 더 이상 눈물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젖은 그 손수건을 쥐어 짜가지고 또 닦고 닦아도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

다. 감격의 눈물이라는 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체형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클과 맞아야 은혜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비결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충성심이 뱃속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충성심이 우리나라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우리나라는고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 하는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도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전도를 한번, 두 번만 하면 지루해서 못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마음을 가지면 뱃속에서부터 충성심이 우리나라는 이 건 건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자신을 어떻게 인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비결입니다. 그런고로 시간시간이 하나님을 증거하려니깐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되는고로 은혜 연결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받쳐 나오는 충성심으로 의해서 전도를 해야 상대방이 감동을 입고, 상대방이 은혜를 입어서 감화 감동이 되어 전도가 되는 것이지 충성

심이 없이 마지못해서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감동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 번 전도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뱃속 깊이 우리나라는 충성심이 왜 없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승리제단이라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감사할 줄 모르면 마귀새끼입니다. 이 사람이 혹독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마귀새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장소에 앉아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시니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감사한 마음이 나와 감격할 마음이 나오고, 감격할 마음이 나와 뱃속 깊이 충성심이 우리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귀 소릴 듣고 천대 멸시를 받고 못매를 맞으면서도 이 사람은 왜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면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는고로 때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강한 은혜 체험이 되는고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감사를 했고, 천대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1992년 5월 1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통일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확고부동한 믿음은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절대적인 믿음이나 사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가나 발견자들은 바로 이러한 절대적 믿음이나 사실을 의심해서 새로운 가치와 진리를 발견해 냈다.

과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천동설(天動說: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의 상식은 깨어지고, 지동설이 새로운 상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보다 더 이전의 희망에서도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학자들이 지동설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저 유명한 플라톤이나 알키메데스와 같은 대학자들까지도 지동설을 다음과 같이 비웃었던 것이다. “만약 지구가 회전한다면 인간은 거꾸로 서게 된다. 그보다도 맨 먼저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로부

터 2000년 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역시 교황 우르반8세에 의해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던 것이다. 그때 그가 읊조린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은 기존의 고정된 관습과 관념을 타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통렬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1750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처음으로 벵락을 전기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때 런던 학사원은 마구 욕설을 퍼부었고, 벵락의 전기설(電氣說)을 아무도 믿지 않았었다.

1796년, 제너가 우두(牛痘)를 사용하여 천연두를 예방하게 되었다. 그 역시 주위 동료 학자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공격을 당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두를 맞은 어린이의 얼굴은 소와 비슷해지고 목소리까지 소를 닮게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핏속에 짐승이 갖고 있는 물질을 주입한다는 것은 구역질 날 만큼 역겨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유명하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1+1=2라는 상식에조차 회의를 품었다. 그는 기상천외한 발명을 했는데 백열전구 인쇄전신기 확성기 축음기 활동사진 등 그의 일생 동안 1300가지가 넘는 대발명을 했다.

피의 원리는 위대한 영생(永生)의 원리

넓은 고정관념과 신념을 버려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론(출처: 위키백과)

그 중 1878년 파리 과학협회의 강연회 석상에서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소개할 사람이 연단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의 일이었다. 어떤 학자가 “저 거짓말쟁이를 끌어내려라”하고 외치며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졌었다. 그때 회원인 고이요 박사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었다. “금속이 인간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축음기는 귀의 착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밖에도 이러한 종류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무시와 경멸, 조롱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실현은 넓은 신념과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부정적 선입견과 집단적식 하나하나를 깨뜨리려는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인류의 완전한 진

리와 행복에로의 세계 도달,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고군분투 중이다. 그 많은 문제 중에서도 인간의 생로병사는 단연 으뜸 문제가 될 것이다.

실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신세계 건설은 한결같이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는 넓은 사고와 맹목적 고정관념 추종자들과 끔찍한 상식의 틀에 박힌 신봉자들과 힘겨운 투쟁을 피할 수 없다. 높고 병들어 죽지 않는 이상세계 건설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가능성과 도전은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생로병사의 해결)에 대한 발견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과 공격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위대한 발견과 도전은 기존의 넓은 신념과 고정관념으로 볼 때, 상식을 벗어나고 황당무계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위대한 발견과 도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저 유명한 물리학자 프리만 다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첫눈에 보았을 때, 미친 듯이 보이지 않는 이론은 희망이 없다” 또 동양의 신비의 도인 노자(老子)는 불로장생의 도로 원조격이다)도 이러한 이치를 일찍이 잘 간파해 전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도를 들으면 열심히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간까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도를 들으면 기간만가할 것이다. 그런데 하처리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도를 들으면 깔깔 깔깔대고 웃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처리들이 웃지 않으면 내 도는 도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불로불사(不老不死)를 풀어낼 ‘피의 원리’라는 위대한 발견이지만, 하처리 사람들의 폄박과 조롱이 없다면 그것은 허위광고에 그칠 것이다.*

김주호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